

광양시, 中企 육성 용자금 이차보전

시비 6억원 투입...3% 이차보전금 2년간 지원 자금 소진시까지...여성기업 등 우대업체는 4%

광양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중소기업육성 용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육성 용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광양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2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업체에 3% 이차보전금을 2년간 지원(최대 3억원 용자한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2개 업체에 7억500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총

200억원 용자 규모의 이차보전금 6억원을 지원해, 내수 침체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기업의 용자지원 수요 증대에 대응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광양시 최고경영인상, 최고근로인상, 산업평화상 수상기업과 여성기업 등 우대업체는 4%의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 업체는 광양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7개 금융기관 10개 지점 중 택 1)에 방문해 사전 대출 상담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용

자신청서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분야별정보(산업경제/단지-기업하기) 혹은 도시광양-기업지원소식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투자경제과 기업지원팀(061-797-3122)에 문의하면 된다.

정해중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광양시 중소기업육성 용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내수침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지원 방안을 강구해 시와 지역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 향일암·사도 국가 지질공원 '도전'

올해 후보지 인증 신청...내년 지정 목표



향일암 주상절리·사도 공룡발자국 화석 등 여수 지질명소에 대한 '국가지질공원' 지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간 추진한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이어 올해 후보지 인증을 신청해 내년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목표로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여수국가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인증 신청' 용역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질공원 관리·운영 기반 구축, 관광 및 교육과정 개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지질공원 등재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협력이 요구되는 만큼 주민 해설사 양성, 관

광·속박시설 운영 등으로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세계급 유산 1개를 포함해 5개 이상의 국가급 유산을 보유해야 하는데, 여수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만으로도 인증 기준을 충족한다"며 "향후 국가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인증 가능성도 높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가지질공원은 울릉도·제주도·부산 등 16곳이 있으며, 국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청송 주왕산·무등산·한탄강·전북 서해안 5곳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chkim@

고흥 포두 송산지구, 올해부터 침수 걱정 끝

배수개선사업 국비 150억 확보...배수로 7.3km 재정비

고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5년 포두 송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포두 송산지구는 매년 집중 호우 시 반복되는 농경지 상습 침수로 경작민들의 피로도가 최고조에 달해 정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흥군은 농림축

산식품부와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2025년 배수개선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배수로 7.3km를 재정비해 포두면 송산리 107ha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며, 열악한 군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포두면 송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시작으로 광범위한 해장만 간척지의 상습 침수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영농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곡성군 산불예방진화대, 첫 야간 대응반 운영

70명 구성...예방·초동 대응 불법 소각행위 등 집중 단속

곡성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최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야간 신속대응반이 운영된다.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곡성군민회관에서 조상래 곡성군수를 비롯해 강덕구 곡성군의회 의장과 의회 의원·관계 공무원·진화대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군은 매년 산불조심기간(1월 24일~5월 15일) 동안 70명으로 구성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화대원들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 및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입산통제 구역 무단 입산과 산림 인접 지역의 논·밭두렁 소각 행위, 쓰레기 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AI 답러닝 기반 24시간 감시체계인 산불 ICT를 활용해 실시간 산불 상황 관리를 강화한다.

무엇보다 올해 처음으로 야간 신속대응반을 운



곡성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최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곡성군 제공>

영하는 게 주목할 점이다. 야간 산불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진화가 더욱 까다로운 만큼, 신속대응반의 운영은 산불 피해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은 조상래 군수와 강덕구 의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진화대원 선서, 산불 예방 및 진화 교육, 장비 사용 요령 교육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불 진화대원들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발대식에서 조상래 곡성군수는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철저한 감시와 단속 활동이 우선돼야 한다"며 "산불의 대부분이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모두가 노력해 곡성의 푸른 산림을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곡성군은 전라남도, 곡성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추고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순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4년간 월 10만원...10일부터 모집

순천시의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10일부터 모집한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10만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 5년 이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대상 주택은 순천시 소재의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주택도시보증(NHUF)의 전세자금대출 상품(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은 가구에 한하여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고사·공고를 참고하거나,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749-4201)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축제·군민의날 행사추진위원회 위촉

시디인근극세 꽃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위촉



구례군은 제81회 지리산 남악제 및 제44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구례군에 따르면 행사추진위원회는 2년간 군민 의견을 반영해 행사 기획 및 운영을 맡게 된다.

신임 추진위원장은 최성현 구례문화원장이 선출됐다. 추진위원회는 임원진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무국을 구성하고 행사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최성현 추진위원장은 "지난해 우천으로 인해 행사가 축소돼 아쉬움이 컸다"며 "올해는 구례를 시

가행진을 포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준비해 군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올해는 더욱 뜻깊도록 향우들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지리산 남악제 및 군민의 날 행사가 군민들의 단합과 애乡심을 고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81회 지리산 남악제 및 제44회 군민의 날 행사는 4월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시, 취약계층 학생에 학원 수강료

초등생 월 최대 18만원, 중·고생 22만원...21일까지 모집

순천시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중·고생 100여명에게, 국·영·수를 제외한 예체능, 직업기술, 제2외국어 과목의 학원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강료의 65%는 시에서, 35%는 순천시에 등록된 가맹 학원에서 지원한다.

또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 이외에도 한부모, 조손, 다자녀 가정까지 기준수강료(초등생 18만원, 중·고생 22만원)의 100%를 지원한다.

수강료 지원 희망자는 순천시청 누리집 공고에 게시된 지원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오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추가 가맹점을 희망하는 학원은 공고에 게시된 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연중 어느 때나 평생학습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과(061-749-676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에 순천학원연합회와 함께 관내 여러 학원들이 참여함으로써,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와 순천학원연합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홍보, 가맹점 모집, 수강생 관리, 성과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청렴도 1등급 이어가겠습니다"

4년 연속 1등급 목표...반부패·청렴 실천 결의

"청렴도 1등급 4년 연속 이어가겠습니다." 보성군이 지난 3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보성군, 보성군의회,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3개 기관·단체와 함께 '2025년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 및 서약식'을 가졌다.

청렴 실천 결의 및 서약식은 김철우 보성군수·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안시영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각 기관 대표자를 비롯한 모든 참석자는 ▲공직사회 부패척결 ▲부당이익 금지 ▲알선 및 청탁 근절 ▲외부 부당 간섭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치며, 청렴 실천 결의를 다졌다. 특히, 이번 결의 및 서약식은 군수,

군의회 의장,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5급 이상 읍·면·장, 부서장 등 40여명의 간부공무원이 전원 참석해 청렴 실천 서약서에 서명했으며, 참석자들은 부패 척결 및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오는 14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추진하고 업무일지 청렴서약서 서명을 통해 보성군 공직자로서 청렴 의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 등급인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yb@kwangju.co.kr